

이창동, 토론토영화제서 한국 감독 첫 ‘에버트 감독상’ 수상 “자아 잃는 시대, 영화는 인간 이해하는 시도”

‘가능한 사랑’ 북미 첫 상영
“노동 가치 퇴색·자아 잃는 현실, 한국만의 문제 아니”

“저는 영화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랑’도 그런 작은 시도였습니다.”

한국 감독 최초로 토론토영화제(TIFF)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이 “로저 에버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상을 앞으로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은 수상 소감을 남겼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감독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페어몬토 로열 요크 호텔에서 열린 토론토영화제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았다. 트리뷰트 어워즈는 뛰어난 영화적 성취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론토영화제가 매해 여는 시상식이다. TIFF 에버트 감독상은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해온 선구적 감독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미국의 저명한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를 기념해 만들어졌다.

‘박학사랑’(2000)과 ‘오아시스’(2002)에 이어 ‘가능한 사랑’에서도 주연으로 함께한 배우 설경구가 무대에 올라 이 감독에게 시상



제51회 토론토국제영화제서 ‘가능한 사랑’ 팀.

넷플릭스·서티스톡 제공

했다. 이 감독은 “저는 영화야말로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매체라고 생각했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어 왔다”며 “그런데 영화를 만들수록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더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아가 없는 인공지능(AI)이 점점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인간 자신도 점점 자아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며 앞으로도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가능한 사랑’

은 다음 날인 14일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극장에서 북미 관객과 만났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 감독과 주연 설경구·조인성·조여정이 무대에 올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감독은 ‘가능한 사랑’에서 다룬 화두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다. ‘가능한 사랑’은 부유한 남편(조인성 분)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조여정)이 해고 노동자 부부(설경구, 전도연)의 삶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계급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서로의 삶과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점점 노동이 사라지고 그 가치마저 퇴색되어 가는 시

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잃어버리는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영화의 메시지를 짚었다.

해고 노동자 호석 역을 연기한 설경구는 “‘오아시스’ 이후 ‘가능한 사랑’을 하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감독님은 예전과 똑같아졌고, 저 또한 23년 전으로 돌아가려 애쓰며 그때의 기억을 그리워했다”고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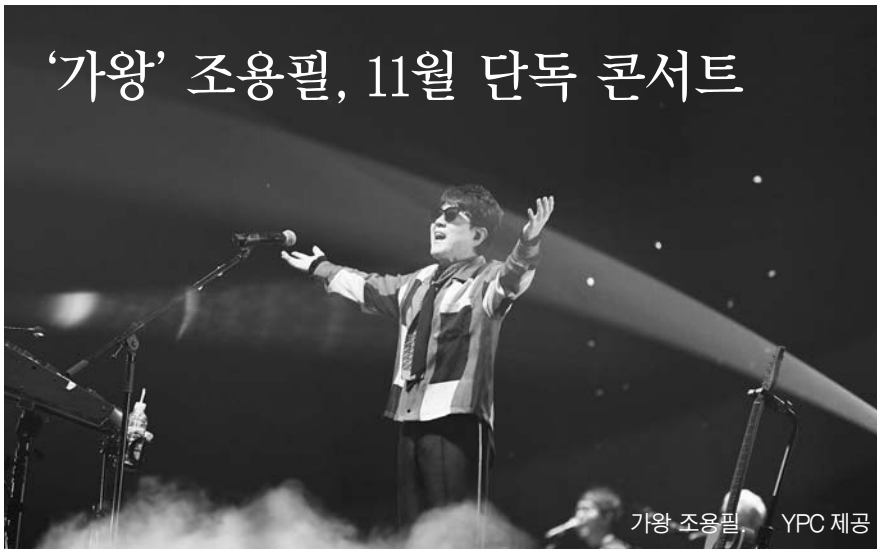
부유한 남편 상우 역의 조인성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재벌이나 자본가의 모습을 새롭게 해석해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역의 조여정은 “촬영 전 감독님께서 예지라는 인물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 본인의 시선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깨가 무거웠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온전히 예지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 감독이 ‘버닝’(2018)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넷플릭스 신작 ‘가능한 사랑’은 토론토영화제에 앞서 제83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처음 상영됐다. 지난 12일 열린 폐막식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영화는 국내에서 오는 23일 개봉하며 넷플릭스에선 11월 6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서울 KSPO돔서 10개월 만

‘가왕’(歌王) 조용필이 오는 11월 27~2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6 조용필 & 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연다고 소속사 YPC가 16일 밝혔다.

조용필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연 공연 이후 10개월 만이다.

YPC는 “이번 콘서트는 수많은 명곡과 독보적인 무대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써 온 조용필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라며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대표곡을 비롯해 조용필의 음악적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

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용필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밴드 위대한 탄생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꾸민다”고 전했다.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프터스프링에 데뷔해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000만장 돌파, 국내 가수 최초 일본 NHK를 공연 및 ‘홍백가합전’ 출연,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공연·미국 카네기홀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스튜디오S, 싱가포르 미디어Corp, 순샷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SBS 제공

‘서른이지만 열일곱’·‘사내맞선’, 숏드라마 된다

SBS미디어그룹의 드라마 제작·유통사 스튜디오S가 숏드라마 제작에 본격 나선다.

스튜디오S는 싱가포르 미디어 기업 미디어Corp, 마이크로드라마(숏드라마) 플랫폼 순샷과 손잡고 숏드라마를 공동 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순샷은 개그맨 이경규가 공동 창업한 ADG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스튜디오S는 배우 신혜선·양세종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안효섭·김세정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사내맞선’ 등 SBS 대표 드라마를 숏드라마 문법으로 새롭게 각색해 선보이기로 했다.

숏드라마 버전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다.

연합뉴스



배우 정건주(왼쪽), 정채연.

티빙 제공

33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공포 드라마 ‘M’
티빙, 내년 정채연·정건주 주연 ‘M:리부트’ 방송

전설의 공포 드라마 ‘M’(엠)이 33년 만에 ‘M:리부트’로 돌아온다.

티빙은 배우 정채연, 정건주가 주연하는 드라마 ‘M:리부트’를 내년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M:리부트’는 1994년 MBC에서 방영한 ‘M’을 원작으로 한다. 촉망받던 발레리나 마리(정채연 분)의 몸에서 미스터리한 인격 ‘M’이

깨어나면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 스릴러다.

원작은 심은하가 주연을 맡아 ‘초록 눈’ 등 파격적인 이미지와 신선한 연출로 평균 시청률 38.6%, 최고 시청률 52.2%를 기록했다.

심은하가 연기한 주인공 마리는 정채연이 맡는다. 그는 촉망받는 여고생 발레리나 마리와 의문의 인

격 M, 베일에 싸인 천재 외과 의사 제나까지 연기하며 1인 3역에 처음 도전한다.

정건주는 계속되는 의문의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추적하는 에이스 형사 지석을 연기한다.

극본은 영화 ‘미생: 사라진 여자’, ‘히든페이스’ 각본을 쓴 홍은미 작가와 신에 이정은 작가가 집필했다. 연출은 영화 ‘스승의 은혜’, ‘무서운 이야기’, U+모바일 tv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등을 만든 임대웅 감독이 맡았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열린채널	6:05 TV 유치원 6:35 바다 건너 사랑 6(재) 7:30 코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양의 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50 다큐멘터리 내버넌딩 이승철(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셀룩(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8월 8:50 제2회 고향사랑 기부대상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2026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8:50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 9:20 차용 배우는 AI 11:05 세테메이팅 13:25 지식채널e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40 최고다! 호기심 막지 17:10 피파 피크 18:50 귀하신 몸 21:55 왔다 내 손주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아흔 둘 해나해의 바당(재) 15:30 네트워크 문화스케이프(재) 16:00 시사건전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50 여가는 나고야 [배구] 여자 D조 예선 대한민국: 카타르 15:45 여가는 나고야 [축구] 여자 F조 2차전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12:00 12 MBC 뉴스 12:25 2026 아시안 게임 X 잇츠라이브 12:4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구] 여 D조 예선 대한민국: 카타르, 14:30 PD수첩(재) 15:3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여 F조 예선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12:00 SBS 12 뉴스 12:45 나고야 2026 15: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5:45 나고야 2026 [축구] 여 F조 조별 리그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넷 제주를 말한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시청자 세상 13: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4:00 제주문화원 포럼 & 세미나 15:2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6:00 웰리니 퀴즈쇼 17:20 네트워크 전국발굴 19:30 KCTV 스페셜 2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때 창가에 일찍이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여행기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9: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속극 기분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사회생태기획 다큐 인사이드 22:50 KBS 뉴스라임W 23:30 이슈 픽 셀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양의 달 20:30 신상식 편스토랑 22:00 토요일 미나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재) 23:15 다큐멘터리 내버넌딩 이승철(재)	18:05 2026 제주MBC 재일제주인들기 성금모금 특별생방송 고향은 잊지 않았습니다 19:05 생방송 연극복면 720+ 19:10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제주MBC 청사 특집 다큐멘터리 마지막 소원, 어느 다정한 병동 22:00 구해줘! 홈즈 23:50 2026 아시안 게임 X 잇츠라이브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한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기이한 연애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7일		김종상 지단(組頭)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언행을 자제하고 흥을 보지 마라.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60년 쪼든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날.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하니 섬세함이 필요. 84년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있는 날이니 자중하라.		42년 식장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 54년 문서운, 계약운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다름, 소송전에서는 불리한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 78년 작은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라. 90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히려 무리지 못 할 것.
	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길하다.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철저히 세워라.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나 이동은 불리하다.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 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		43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55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하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67년 모임이 있으면 차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79년 취업에 변화를 피하려 하거나 인기몰이로 변화를 주려 한다. 91년 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 과음절제.
	38년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 62년 배달사고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6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역부족.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 동료간 논쟁을 조심해야. 68년 관재구설수가 두려우니 미련에 양